

Morning Meeting Brief

Global

미국, 무역법 301 조 관세 발표, 미국 증시 방향성, 좌우할 변수

- 24일 美 보편적 임시 관세 만료, 이를 대체할 무역법 301조 관세 발표 예상
- 동 조치가 6월 이후 건전한 조정을 보여왔던 美 증시 변동성 확대 영향
- 이제는 美 증시 향방에 관심을 둘 시점, 8월 전세계 증시 움직임 복선 역할

문남중, namjoong.moon@daishin.com

Macro

한국 GDP: 이 정도면 훌륭한 성적표

- 한국 2Q GDP +0.6%QoQ / +3.7%YoY 성장해 시장 예상치 상회
- 수출 기여도 예상보다 낮았으나, 양호한 소비 흐름 지속, 실질 소득은 급증
- 최근 중동 긴장 고조에도 실제 공급 차질 없다면 연간 3.5% 성장 전망

이정훈, jhoon.lee@daishin.com

Strategy

[다음주 시장은?] FOMC와 빅테크 실적 발표에 집중

- KOSPI 선행 PER 역사적 밸류에이션 저점권, 반도체 저가매수세로 반등 시도
- 유효한 이익모멘텀으로 방향성은 명확, 단기 변동성은 비중확대 기회
- FOMC와 빅테크 실적 발표 대기, KOSPI의 반등시도는 지속될 전망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퀀틴전시 플랜] 알파벳 CapEx가 이끈 AI 모멘텀, 외국인 매수세 유입

- 알파벳 클라우드 호조·CapEx 확대, AI 인프라 전반 투자심리 회복
- 중동 긴장 고조에도 외국인 순매수 지속, 지수 상승 견인
- 외국인 순매수에 저평가 업종 반등, 2차전자·방산·조선 강세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Commodity

호르무즈 해협처럼 신뢰를 잃어버린 홍해

- 예멘 후티 반군(친이란) 공격으로 다시 막혀버린 홍해, 아시아 국가들의 운임비 부담 Up
- 7월부터 종료될 전략비축유(SPR) 방출 효과, 중요해진 중동 공급망 사태 장기화 여부
- TACO 출현으로 잠시 진정될 수 있지만 내년 사상 최고치 유가 향한 방향은 여전히 불변

최진영, jinyoing.choi@daishin.com

[2Q26 Review] KB 금융: 압도적 환원 규모

- 비이자이익 2조원에 육박, 사상 최고 실적 달성
- 증권 상반기 순이익 7,963억원, YoY +135% 증가
- '26년 예정된 환원액만 3.7조원, 목표주가 상향, 적극 매수 구간

박혜진, hyejin.park@daishin.com

[2Q26 Review] 신한지주: 향상된 실적으로 환원액도 늘어날 전망

- 비이자이익 사상 최고실적 달성하며 2분기 순이익 컨센 크게 상회
- 10월까지 자사주 7,000억원 매입, 4분기 추가 4,000억원 예상
- '25년 대비 환원액 27% 증가 전망, PBR 0.81x 매우 저평가

박혜진, hyejin.park@daishin.com

[2Q26 Review] LS ELECTRIC: 구조적 실적 개선. 이제 시작일 뿐!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330,000원으로 상향(기존 대비 +10%)
- 2Q26 매출액 32%, 영업이익 64% 증가, 서프라이즈 기록
- 26년 매출액 6.78조원(+37% YoY), 영업이익 7,900억원(+85%) 전망

허민호, minho.hur@daishin.com

[2Q26 Review] 삼성바이오로직스: 분기 최대 실적 달성, 3Q 쉬어가도 성장은 지속

- 2Q26 분기 최대 실적 달성, 컨센서스 부합
- 파업 영향 3Q 저점, 가이드نس 20% 상향
- 신규 수주 · 펩타이드 CDMO로 중장기 성장 기대

홍가혜, kahye0.hong@daishin.com

[2Q26 Review] 현대차: 부담은 덜어냈다

- '26년 고점(73만원) 대비 추가 -42% 하락한 상황에서 실적 부담 완화
- 2H26 신차 모멘텀/관세&환율 기저로 실적 개선 가시성 매우 높음
- 1) 신차 모멘텀, 2) RMAC 가동, 3) Physical AI 전략, 4) CID 이벤트 주목

김귀연, Gwiyeon.kim@daishin.com

[2Q26 Review] 삼성E&A: 실적도, 수주도 가속화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68,000원으로 -6.8% 하향. 건설업종 내 Top-pick 유지
- 매출액 2.6조 원(+19.8%, YoY), 영업이익 2,731억 원(+51.0%, YoY)으로 컨센서스 상회
- 그룹사 물량 확대에 따라 향후 2~3년 간 수주 확대 및 매출 성장 지속 전망

이혜진,hyejin1.lee@daishin.com

[Issue Comment] 코람코더원리츠: 하나증권빌딩 매각 완료, 특별배당 후 청산 추진

- 코람코더원리츠 보유 자산 여의도 하나증권빌딩 매각 완료. 3,180억 원의 매각차익 실현
- 매각 성과 및 잔여 금액 주주 환원 후 리츠 청산 결정
- 자산 매입-운용-매각-주주환원 및 청산까지 이어지는 리츠 투자 사이클 성공적으로 마무리

이혜진,hyejin1.lee@daishin.com

Global Strategy

Global Strategist 문남중
namjong.moon@daishin.com

미국, 무역법 301조 관세 발표. 미국 증시 방향성, 좌우할 변수

- 24일 美 보편적 임시 관세 만료. 이를 대체할 무역법 301조 관세 발표 예상
- 동 조치가 6월 이후 건전한 조정을 보여왔던 美 증시 변동성 확대 영향
- 이제는 美 증시 향방에 관심을 둘 시점. 8월 전세계 증시 움직임 복선 역할

미국, 보편적 임시 관세 24일 만료. 이를 대체할 무역법 301조 관세 조치 발표

24일 미국이 전 세계에 부과 중인 10%의 보편적 임시 관세가 만료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에 의거한 새로운 관세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2월 연방대법원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국제비상경제권한법 의거)를 위법으로 판단하자, 무역법 122조(최장 150일 부과)를 근거로 10%의 보편적 임시 관세를 도입했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에 의거해 강제노동과 산업 과잉생산 2가지를 근거로 관세를 추진해왔다. 강제노동 분야는 올해 3월부터 한국 등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됐고, 6월 중간 발표에서 10~12.5% 관세가 예고됐다. 한국의 경우, 12.5% 관세가 적용되는 46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됐다. 철강·알루미늄·자동차는 별도의 품목 관세 적용 그리고 반도체는 한미 합의로 무관세가 유지된다. 산업 과잉생산 분야는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중이다. 앞으로 미국이 산업 과잉 생산으로 무역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명분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은 향후 전 세계 경제 및 증시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 변수가 될 것이다.

6월 이후 미국 증시, 건전한 조정 구간. 다만 무역법 301조 관세 발표가 증시 변동성 확대로 연결될 경우도 염두에 둘 필요

미국 증시(S&P500)는 6월 이후, 7,230~7,620p 밴드 안에서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지는 패턴 흐름이 지속 중이다. 특히 6월에서 7월로 넘어 오면서 증시 변동폭은 축소되고 있고, 고점과 저점이 수렴하는 모습이라서 빠르면 7월 마지막 주, 늦어져도 8월 첫째 주에는 미국 증시 흐름에 의미 있는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6월부터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글로벌 통화긴축, 7월 새롭게 부상한 이란 전쟁 확전에 이어 24일 전후로 발표될 트럼프 301조 관세는 건전한 조정 구간에 놓였던 미국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지난해 3~4월 미국 증시 급락에는 트럼프 관세 부과가 배경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6월~3/4분기 '글로벌 통화 긴축'+ '이란 전쟁 확전'+ '미국 무역법 301조 관세 발표' 맞물리며, 증시 변동성 확대 지속

올해 미국은 5월 발표된 4월 PCE를 시작으로 물가 상승 및 금리 불안 환경이 지속되는 (-)실질정책금리 구간에 놓여 있다. 6월 BOJ, ECB 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통화 긴축 부상, 7월 이란 전쟁 확전에 이어 24일 전후 미국 무역법 301조 관세 발표는 미국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것이다. 6월부터 현재까지 반도체 국 증시에 쏠렸던 관심을 이제는 미국 증시 향방에 관심을 뒤야, 전세계 증시가 8월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Macro

Economist 이정훈, CFA
jhoon.lee@daishin.com

한국 GDP : 이 정도면 훌륭한 성적표

- 한국 2Q GDP +0.6%QoQ / +3.7%YoY 성장해 시장 예상치 상회
- 수출 기여도 예상보다 낮았으나, 양호한 소비 흐름 지속. 실질 소득은 급증
- 최근 중동 긴장 고조에도 실제 공급 차질 없다면 연간 3.5% 성장 전망

1Q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성장 지속

한국 2Q GDP 는 +0.6%QoQ, +3.7%YoY 성장해 당사 예상(+1.0%QoQ)을 하회했으나 시장 예상치(+0.4%QoQ)는 상회했다. 1Q +1.8% 서프라이즈 성장을 기록했음에도 2020 년대 평균(+0.5%)을 상회하는 성장을 보여주었다. 상반기 성장률은 +3.8%로 2021 년 이후 최고치이다.

생각보다는 약했던 수출, 투자는 부진했지만 소비는 양호

2Q 성장률이 당사 예상치를 하회한 것은 순수출 부문의 기여도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2 분기 수출 물량 증가율과 수입 물량 증가율의 차이가 더 확대되었으나, GDP 통계 상 순수출 기여도는 +0.3%p 로 1 분기 +1.1%p 대비 큰 폭으로 낮아졌다.

내수 부문은 다소 혼재된 모습을 보였다. 1 분기 예상 외 호조를 보였던 설비투자(+6.6% → +0.2%), 건설투자(+1.4% → -0.2%)는 모멘텀이 큰 폭으로 둔화되었다. 반면 정부부문과 지적재산생산물 투자는 반등했고, 민간소비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기는 했으나(+0.6% → +0.4%)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

2026 년 3.5% 성장 예상

2 분기 성장은 전반적으로는 1 분기 급등을 감안할 때 제법 훌륭한 성적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은 총재의 언급처럼 한국은 교역조건의 가파른 개선 덕에 생산 대비 국민 총소득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도의 차이일 뿐 결국 시차를 두고 국내 경제에 파급효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한국 경제는 하반기에도 양호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통행이 다시 제한되고 있는 점과, 이번주 발표될 트럼프 행정부의 새 관세 정책 등이 하방 리스크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중동 문제가 실제 심각한 에너지 공급 차질을 유발하지 않는다면 성장 경로에는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아직 반도체 수출 경기는 별다른 둔화 조짐이 없으며, 하반기 중 반도체 기업들의 국내 투자도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2026 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8%에서 3.5%로 상향한다.

FOMC와 빅테크 실적 발표에 집중

- KOSPI 선행 PER 역사적 밸류에이션 저점권, 반도체 저가매수세로 반등 시도
- 유효한 이익모멘텀으로 방향성은 명확. 단기 변동성은 비중확대 기회
- FOMC와 빅테크 실적 발표 대기, KOSPI의 반등시도는 지속될 전망

KOSPI 선행 PER 역사적 밸류에이션 저점권, 반도체 저가매수세로 반등 시도

최근 낙폭이 과도했던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며 국내 증시는 반등. 7,100선에 근접하면서 KOSPI 12개월 선행 PER은 6.06배(7/23 기준)로 6배 회복. 하지만, 여전히 역사적 밸류에이션 저점권에 위치. KOSPI 선행 EPS는 1,171pt(7/23 기준)로 6월 말 1,105.1pt 대비 상승세 유효. 실적 우려로 KOSPI 급락이 전개되었지만, 실적 개선세는 여전히 유효. 밸류에이션 정상화만으로도 상승여력 충분

반도체 반등 배경에는 1) 한국 수출 호조 및 D램 수출 단가 상승, 2) 글로벌 IB의 우호적 투자 의견, 3) 엔비디아 베라 루빈 양산, 4) 슈퍼마이크로 이익 개선 및 수주, 5) 알파벳 실적발표가 자리. 특히 알파벳은 2분기 클라우드 매출 호실적과 2026년 CapEx 가이드스 확대로 견조한 AI 인프라와 데이터센터 수요를 증명

일각에서는 알파벳의 FCF 마이너스 전환으로 장기 투자에 대한 우려 제기. 그러나 현금흐름 악화는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CapEx 확대에서 비롯됐고, 투자 재원이 현금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도한 우려는 제한

유효한 이익모멘텀으로 방향성은 명확. 단기 변동성은 비중확대 기회

한편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은 지속되는 가운데,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봉쇄 및 사우디 유조선 공격으로 WTI 선물은 90달러 상회. 이는 7월 6일 저점 68.6달러 대비 +30% 이상 레벨업된 수준.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도 불확실성 요인. USTR 대표가 후속 조치 발표를 예고하며 단기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 이번 주와 다음 주 다수 이벤트가 집중되면서 시장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결국 주목해야 할 점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국내 증시 이익모멘텀이 유효한 상황에서 방향성은 명확. 대내외 이슈/이벤트는 단기 노이즈로 비중확대 기회

FOMC와 빅테크 실적 발표 대기, KOSPI의 반등시도는 지속될 전망

다음 주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아마존 등 빅테크의 실적 발표 예정. 여전히 주목할 점은 향후 가이드스와 CapEx 상향 여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는 장기공급계약과 메모리 수요 및 수익성을, 빅테크에서는 AI CapEx 투자 확대와 실제 매출 및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할 필요

일부 기업이 실적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실망한 필요는 없음. 견조한 AI 수요를 증명한 알파벳의 실적 발표가 추후 기업들의 길잡이가 되어줄 가능성 높기 때문. KOSPI 반도체의 27년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현재 998.3조로 재차 상승세 전환했고, 다음 주를 거치며 이익 전망 상향 조정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

한편, 미국 FOMC(7/30)도 예정. 최근 불거진 미국-이란 갈등 심화 및 홍해 봉쇄 우려가 물가 상승 우려를 자극하고 있지만, 3~4월 미국-이란 전쟁에서의 경험으로 트럼프 대통령 TACO 가능성도 가까워지고 있다는 판단. 양측의 정치, 경제적 부담이 임계점에 다가갈 경우 중재국 합의 하에 협상 테이블로 복귀 예상. 케빈 워시의장의 태스크포스로 기자회견 발언이 제한된 가운데, 추가적 긴축 시그널이 부재하다면 채권금리, 환율 안정에 힘이 실릴 것. 이 경우 외국인 순매수 유입에 근거한 KOSPI 반등시도는 지속될 전망

알파벳 CapEx가 이끈 AI 모멘텀, 외국인 매수세 유입

- 알파벳 클라우드 호조·CapEx 확대, AI 인프라 전반 투자심리 회복
- 중동 긴장 고조에도 외국인 순매수 지속, 지수 상승 견인
- 외국인 순매수에 저평가 업종 반등, 2차전자·방산·조선 강세

알파벳 클라우드 호조·CapEx 확대, AI 인프라 전반 투자심리 회복

알파벳은 2분기 클라우드 매출이 YoY +82% 상승한 248억달러를 기록하고, 26년 CapEx 가이드를 2,000억 달러로 상향하며, 견조한 AI 수요를 재확인

FCF가 마이너스 전환하며 장기 투자에 대한 우려도 일부 유입. 다만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에 따른 결과이고, 투자 재원도 보유 현금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도한 우려는 제한적

다음 주 빅테크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알파벳의 실적 발표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 진정되며 반도체 업종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
AI 인프라 전반으로 투자심리가 확산된 점도 긍정적. LS ELECTRIC이 호실적을 발표하고, 미국 PJM 전력망의 공급 차질로 국내 전력기기 업종의 수혜 기대가 확대
반도체 Top2: 삼성전자(+3.7%), SK하이닉스(+4.9%)

전력기기: LS ELECTRIC(+17.3%), HD현대일렉트릭(+9.3%), 효성중공업(+7.0%)

중동 긴장 고조에도 외국인 순매수 지속, 지수 상승 견인

미군은 12일 연속 이란에 대한 공습을 실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을 공격할 경우 이란 수도를 비롯해 교량과 발전소 등을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 이란도 자국이 원유를 수출하지 못한다면 다른 국가의 원유 수출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맞서며 양측의 대치 지속

여기에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사우디 선박을 공격하며 지정학적 긴장 한층 고조. 이에 WTI와 브렌트유 선물은 각각 88달러와 96달러를 상회하며 물가 부담을 자극했고, 증시 하방 압력으로 작용

다만 대외 불확실성에도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는 지속. 외국인은 4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간 가운데 금일에도 약 2조1,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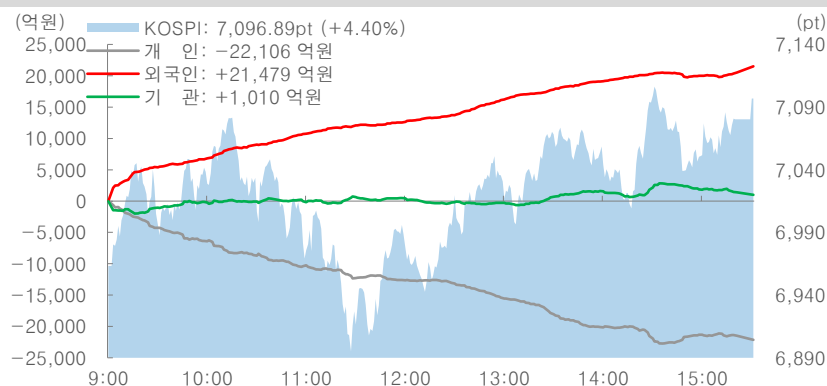
외국인 순매수에 저평가 업종 반등, 2차전자·방산·조선 강세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 업종 전반적으로 강세. 저평가 업종으로 저가매수세 유입
2차전자: LG에너지솔루션(+8.4%), 삼성SDI(+11.5%), 엘앤에프(+8.1%)

방산: 한화에어로스페이스(+7.5%), LIG디펜스엔에어로스페이스(+10.3%)

조선: HD현대중공업(+7.2%), HD한국조선해양(+7.8%), 삼성중공업(+9.5%)

KOSPI 투자주체별 수급 및 장중흐름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호르무즈 해협처럼 신뢰를 잃어버린 홍해

- 예멘 후티 반군 공격으로 다시 막힌 홍해, 아시아 국가들의 운임비 부담 ↑
- 7 월부로 종료될 SPR 방출 효과, 중요해진 중동 공급망 사태 장기화 여부
- 잠시 진정될 수 있지만 내년 사상 최고치 유가 향한 방향은 여전히 불변

예멘 후티 반군 공격으로 다시 막힌 홍해, 아시아 국가들의 운임비 부담 가중

지난 23일, 홍해상에서 사우디 국적 유조선 2척이 공격받았다. 앞서 예멘 후티 반군(친이란)은 사우디 측이 Sana 공항(예멘 소재)을 공격했다는 이유로 사우디에 대한 해상 봉쇄를 시행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미 일부 선박들은 해상 봉쇄가 현실화됨에 따라 회항을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홍해는 1년도 안돼서 다시 막혀버린 것이다.

이는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의 운임비 부담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간 사우디는 동-서 송유관(Abqaiq 유전-Yanbu항)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해왔다. 이렇게 우회된 원유는 419만b/d(6월 기준)로 이 중 약 350만b/d가 바브 엘만데브 해협을 통해 아시아로 향한다. 만일 수에즈 운하-회랑봉을 통해 수출할 경우 운송 기간만 약 4주가 더 소요된다. 비용 압박이 가중되는 순간이다.

7 월부로 종료될 SPR 방출 효과, 중요해진 중동 공급망 사태의 장기화 여부

문제는 중동 공급망 사태의 장기화 여부이다. 유가는 아시아 국가들의 수요 억제(차량 2/5부제, 자차 이용 제한, 재택 근무 등) 조치와 4.1억배럴에 달하는 전략비축유(SPR)로 인해 상단이 제한될 수 있었다. 그러나 수요는 영구적으로 억제할 수 없다. 전략비축유 역시 7월 이후에는 방출 효과가 종료된다. IEA 측은 10억배럴 이상의 재고가 남아 있다고 강조했지만 호르무즈와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가 장기화된다면 임시 방편에 그칠 수밖에 없다. 2014년 이래 최저 수준까지 급감한 OECD 석유 재고는 역설적으로 불안감만 안겨줄 뿐이다.

잠시 진정될 수 있지만 내년 사상 최고치 유가를 향한 방향은 여전히 불변

물론 지금은 미국의 중간 선거라는 정치 이벤트를 앞둔 시기로 TACO(예: 휴전)는 언제든지 재출현할 수 있다.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지지율 역전을 위해서라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진정제에 불과하다. 중동 지역 공급망은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여기에 2대 산유국인 러시아까지 말썽이다. 4월말부터 우크라이나 군의 거세진 공격으로 러시아 내 10대 정유 시설들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휘발유 생산량은 계절 평균 소비량의 65%까지 추락했다. 미국산 원유 수출량이 급증했지만 유전 개발 투자는 정권 교체 리스크(탄소중립 규제 강화, 증세 등) 탓에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자료(변함없음) 방향성, 원자재와 함께 춤을(5/20)에서 전한 유동성 효과가 뒤늦게 반영되기 시작한다면 사상 최고치 유가는 당초 예상(2027년 WTI 가격: 연평균 130달러)보다 이른 시점에 도달이 가능하다. 그러한 점에서 단기 조정 시 저가 매수에 나설 것을 권고하며 내년 말까지 우-상향이라는 기존 View를 유지한다.

KB금융
(105560)박혜진
권용수RAhyejin.park@daishin.com
yongsu.kwon@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232,000

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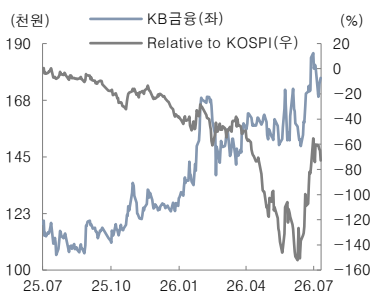
현재주가
(26.07.23)

176,300

은행업중

KOSPI	7,096.89
시가총액	62,531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94%
자본금(보통주)	2,091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86,200원 / 106,0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2,287억원
외국인지분율	79.41%
주요주주	국민연금공단 9.33%
	Capital Research and Management Company 외 2인 7.12%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4.7	11.6	30.0	52.9
상대수익률	32.6	1.8	-8.6	-31.4



압도적 환원 규모

- 비이자이익 2조원에 육박, 사상 최고 실적 달성
- 증권 상반기 순이익 7,963억원, YoY +135% 증가
- '26년 예정된 환원액만 3.7조원, 목표주가 상향, 적극 매수 구간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232,000원으로 상향

하반기 자사주 매입 금액 7,000억원 결의하였는데, 이익 규모 고려하여 4분기 중 추가 집행 금액은 최소 1,8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 하반기 사실상 자사주 매입만 1조원 가까이 집행될 예정. 현금배당액 1.62조원, 자사주 매입액 2.08조원으로 예정된 환원액만 3.7조원인셈. 다만 추가 집행액 1,800억원은 동사의 PBR이 최근 1배까지 상승한 점을 고려하여 현금배당 비중을 높일 수도 있음. '26년 예상 EPS 증가율 15.1%, 총 환원액 증가율 21.5%, 총 환원을 53.9%임을 감안하면 글로벌 피어 대비 PBR 1배는 매우 저평가. 우리는 동사의 목표주가를 232,000원으로 상향하며 압도적인 환원규모를 고려 시 적극 매수 구간이라는 판단

2Q26 지배주주 순이익 1.99조원(QoQ +5.3% YoY +14.6%) 기록

2분기에도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 4대 금융지주 가운데 가장 완성도 높은 비은행 포트폴리오로 비이자이익이 약진. 비이자이익 호조의 중심에는 1분기와 마찬가지로 증권 실적 개선이 건인

2분기 일평균 거래대금이 90조원을 상회하여 1분기 대비 36.4% 증가. 주식 시장 호조는 증권 브로커리지 실적 개선뿐만 아니라 은행 수수료수익 개선에도 기여. 금리 상승하여 매매평가손익은 1분기 대비 감소하겠으나 수수료수익이 워낙 좋기 때문에 비이자이익 1.98조원(QoQ +19.8%, YoY +38.2%)으로 사상 최고 실적 달성. 증권 상반기 순이익 7,963억원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 지주는 지난 6월 증권에 1조원 증자를 결정. 주식 시장 활황에 따른 리테일 신용한도 확대 및 IB, 트레이딩 등 증권영업 전반적으로 자본 배분 예정. 특히 IMA심사기준이 달라짐에 따라(자기자본 8조원 이상, 2년간 유지해야함) 신사업 진출 대비 목적도 존재. '26년에만 증권에 총 1.7조원 증자하였는데, 확대된 자본력으로 '26년 순이익 1.2조원 이상 전망

은행 마진은 대기업 대출 경쟁 심화됨에 따라 1분기 대비 3bp 하락한 1.74%, 원화대출은 분기 대비 1.6% 성장. 6월말 CET1비율은 환율상승에도 13.74%로 1분기 대비 상승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24	2025	2026E	2027E	2028E
순영업수익	17,028	17,945	19,185	19,202	19,473
영업이익	8,046	8,531	9,518	9,458	9,616
순이익	5,078	5,843	6,526	6,631	6,746
YoY(%)	9.6	15.1	11.7	1.6	1.7
ROE	8.8	9.9	10.5	10.2	9.9
EPS	13,034	16,294	18,764	19,739	20,891
BPS	148,573	151,573	178,532	193,505	210,580
PER	5.4	7.8	9.4	8.9	8.4
PBR	0.47	0.83	0.99	0.91	0.84

자료: KB금융,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신한지주 (055550)

박혜진
권승수RA

hyejin.park@daishin.com
yongsu.kwon@daishin.com

투자 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130,000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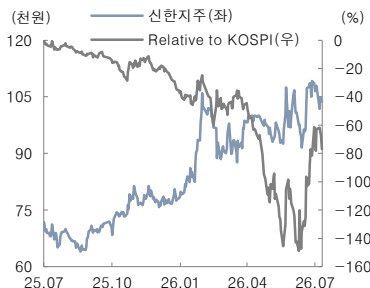
현재주가
(26.07.23)

103,800

은행업종

KOSPI	7,096.89
시가총액	49,269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74%
자본금(보통주)	2,371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09,200원 / 64,0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519억원
외국인지분율	61.54%
주요주주	국민연금공단 9.19% BlackRock Fund Advisors 외 13 인 6.12%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6.2	3.9	23.7	52.4
상대수익률	22.8	-5.2	-13.0	-31.6



향상된 실적으로 환원액도 늘어날 전망

- 비이자이익 사상 최고실적 달성하며 2분기 순이익 컨센 크게 상회
- 10월까지 자사주 7,000억원 매입, 4분기 추가 4,000억원 예상
- '25년 대비 환원액 27% 증가 전망, PBR 0.81x 매우 저평가

투자 의견 Buy, 목표주가 130,000원 유지

새로운 밸류업 정책에 따라, CET1비율 13%~13.4% 범위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분기 배당금 740원 기준 DPS증가율 14.3%, '26년 4분기 배당부터 3년간 전액 비과세 배당 적용됨. 10월까지 자사주 7,000억원 매입 결의하였으며, 이익 흐름에 따라 4분기중 추가 실시할 예정인데, 우리는 4,000억원 수준으로 추정. 이에 따라 '26년 현금배당액 1.36조원, 자사주 매입액 1.8조원, 총 환원금액 3.16조원으로 총 환원을 53.9% 달성 전망. 훌륭한 실적과 더불어 환원액이 지난해 대비 27%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비해 PBR 0.81x로 매우 저평가 수준. 적극적으로 매수할 타이밍

2Q26 지배주주 순이익 1.82조원(QoQ +12.2% YoY +17.5%) 기록

2분기 순이익은 컨센서스와 당사 추정을 14% 상회하는 양호한 실적을 달성. 은행 마진이 1분기 대비 1bp개선되었고, 원화대출은 0.4% 성장에 그쳤으나 이자수익부자산이 전 분기 대비 2.2% 증가하여(1분기 1.3% 증가) 이자이익 3.13조원(QoQ +3.6%, YoY +9.4%) 기록. 비이자이익 1.45조원(QoQ +22%, YoY +14.6%)으로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자본시장 유동성 급증으로 은행, 증권, 자산운용 등 수수료이익이 크게 증가. 다만 증권의 수탁수수료수익은 3,844억원(QoQ +30.9%) 기록하였으나 상품운용손익이 크게 감소하면서 순이익은 2,893억원으로 1분기 대비 0.3% 개선이 그림

대손비용 4,370억원(QoQ -14.7%, YoY -30.4%) 기록, 증권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368억원, 중앙그룹 관련 총당금 109억원, 홈플러스 임대 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총당금 160억원 반영. 그 밖에 은행의 ELT 과징금 837억원이 영업외이익으로 환입되었으며, CET1비율은 1분기 대비 13bp 개선된 13.43% 기록. 그룹 RWA는 367.6조원으로 분기 대비 1.6% 상승, 연간으로 4.2% 증가. ELT과징금 관련 7월말 최종 규모가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금융감독원 임시 제재심의위원회가 정한 6,000억원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어 추가 환입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24	2025	2026E	2027E	2028E
순영업수익	14,580	15,439	16,605	17,373	17,871
영업이익	6,470	7,023	7,780	8,097	8,327
순이익	4,518	4,972	5,871	6,121	6,224
YoY(%)	3.4	10.0	18.1	4.3	1.7
ROE	6.2	7.5	8.4	8.1	7.0
EPS	9,276	10,419	12,304	12,828	14,842
BPS	115,675	121,468	129,933	135,666	160,896
PBR	0.50	0.64	0.81	0.77	0.65
PER	6.21	7.51	8.44	8.09	6.99

자료: 신한지주,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LS ELECTRIC

(010120)

허민호

minho.hur@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330,000

상향

현재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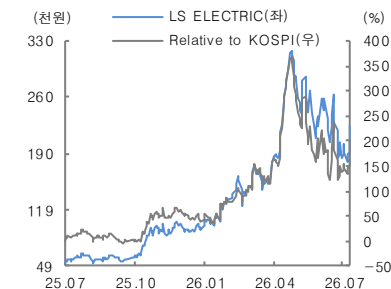
(26.07.23)

223,500

유틸리티업종

KOSPI	7096.89
시가총액	33,525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50%
자본금(보통주)	150십억원
52주 최고/최저	318,500원 / 51,9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2,333억원
외국인지분율	18.17%
주요주주	LS 외 10 인 48.48% 국민연금공단 8.79%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3.9	3.0	119.5	299.1
상대수익률	11.1	-6.0	54.4	79.0



구조적 실적 개선. 이제 시작일 뿐!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330,000원으로 상향(기존 대비 +10%)
- 2Q26 매출액 32%, 영업이익 64% 증가, 서프라이즈 기록
- 26년 매출액 6.78조원(+37% YoY), 영업이익 7,900억원(+85%) 전망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330,000원으로 상향(기존 대비 +10%)

목표주가를 330,000원으로 상향함(실적 전망치 상향 등을 반영). 목표주가는 2028년 예상 EPS 평균 x 목표 PER 43배에 해당. 동사는 1) 미국 빅테크향 배전반 수주가 2Q25 본격화, 2026년 고성장 진입, 2) 미국 배전기기 유통업체 50개 확보 등 진입장벽이 높은 하이엔드 고객사(첨단제조업, AI데이터센터 등)향 배전반/배전기기 시장 진입 성공, 3) 한국, 미국, 베트남에서 배전반, 배전기기, 초고압 변압기 등의 빠른 증설로 공급 부족 수혜 극대화 등으로 글로벌 Peer 대비 중장기 높은 실적 성장세 예상. 이를 감안 시, 높은 밸류에이션은 정당화 가능. 특히, 배전기기는 공급물량 확보 시 자동화에 유리하며, 배전반은 배전기기의 시스템 제품인 만큼 초고압 전력기기 대비 노동 투입비중이 작아 빠른 증설과 램프업이 가능함. 또한 배전기기는 교체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는 등 높은 진입장벽 통과에 성공할 경우, 반복 매출이 발생함. 이러한 산업 특성도 구조적인 높은 밸류에이션 정당화 요인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미국 초고압 변압기(전력 및 특수 변압기) PPI와 달리, 배전반/개폐기/차단기 PPI는 2025년 들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 이에 따라 21년 이후 배전반/개폐기/차단기 PPI 상승률은 78%로, 동기간 초고압 변압기 PPI 상승률 74%를 능가하기 시작함. 미국 AI데이터센터, 최첨단 제조업(반도체 등) 증설 등으로 배전용 전력기기의 공급 부족, 제품가격 상승, 리드타임 증가 등이 심화되고 있음. 동사는 높은 제품 품질력, 빅테크향 레퍼런스 등의 확보에 성공했으며, 빠른 납기 준수(현재 일반적인 배전기기 리드타임 2년 수준으로 증가, 빅테크는 10개월 수준을 요구)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 이는 동사의 산업 내 지위가 레벨업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2Q26 매출액 32%, 영업이익 64% 증가, 서프라이즈 기록

2Q26 매출액 1.58조원(+32%, 이하 YoY), 영업이익 1,785억원(+64%), 영업이익률 11.3%(+2.2%p)로, 영업이익 컨센서스 1,640억원을 상회함. 미국향 전력기기 매출 증가 이외에도 국내외 반도체 증설 등으로 전력사업과 자동차 사업 모두 외형 성장 및 수익성 개선에 성공했음.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적자도 축소되었음. 2Q26 수주금액은 2.1조원(1Q26 1.08조원) 달성. 26년 수주가이던스를 기존 4조원에서 6조원으로 상향했으며, 자회사 LS파워솔루션의 초고압 변압기를 추가 증설하기로 함. 현재 미국 배전반 증설을 진행 중이며 3Q27 준공. 2028년 매출 3,300억원, 2030년 7,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음. 또한 국내 배전기기 공장의 빅테크 전용 라인 증설도 검토 중인 점도 긍정적

26년 매출액 6.78조원(+37% YoY), 영업이익 7,900억원(+85%) 전망

2026년 매출액 6.78조원(+37%, 이하 YoY), 영업이익 7,900억원(+85%), 영업이익률 11.7%(+3.1%p) 전망. 상반기 수주금액 3.2조원 중 6 ~ 12개월 내 매출이 인식되는 배전반/분전반이 1.48조원이며, 2025년말 초고압 변압기 증설분의 온기 반영, 전력 인프라 및 반도체 증설 수혜, 하반기 고마진의 미국향 배전기기 공급 확대 등을 반영하여 실적 전망치를 상향함

삼성바이오로직스
(207940)

홍기혜

kahye0.hong@daishin.com

투자 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2,000,000

유지

현재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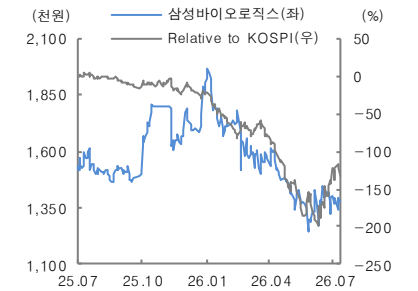
1,379,000

(26.07.23)

제약업종

KOSPI	7096.89
시가총액	63,835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96%
자본금(보통주)	116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965,000원 / 996,0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857억원
외국인지분율	12.79%
주요주주	삼성물산 외 5 인 74.30% 국민연금공단 6.68%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8.3	-8.9	-23.5	29.6
상대수익률	25.2	-16.9	-46.2	-41.9



분기 최대 실적 달성,
3Q 쉬어가도 성장은 지속

- 2Q26 분기 최대 실적 달성, 컨센서스 부합
- 파업 영향 3Q 저점, 가이던스 20%로 상향
- 신규 수주·펩타이드 CDMO로 중장기 성장 기대

투자 의견 매수, 목표주가 2,000,000원 유지

목표주가는 DCF 방식으로 산출(WACC 8.1%, 영구성장률 3.5% 적용). 현재 주가 대비 상승여력 45.0% 보유.

2Q26 분기 최대 실적 달성

2Q26 매출액 1조 3,209억원(+30% yoy), 영업이익 5,864억원(+23% yoy), 영업이익률 44.4%(-2.7%p yoy)를 기록하며 컨센서스에 부합. 1~4공장 Full 가동과 우호적 환율 효과로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되며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 다만 5공장 및 미국 생산시설 가동 준비에 따른 비용 반영으로 원가율이 상승하며 이익률은 소폭 하락. 한편, 5월 파업에 따른 약 1,500억원 규모의 매출 차질이 발생했으나, 2Q 실적 영향은 제한적이었으며, 차질분은 3Q 이후 반영될 전망.

3Q26 파업 영향 저점, 4Q 회복·신공장 램프업으로 가이던스 상향

2026년 매출액 5조 5,314억원(+21.4% yoy), 영업이익 2조 4,725억원(+19.6% yoy) 전망. 3Q26에는 파업에 따른 매출 차질이 반영되며 성장을 둔화가 불가피하나, 생산일정 조정을 통한 4Q26 재인식과 우호적 환율 효과를 감안하면 실적 영향은 시장 우려 대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노사협상 관련해서는 타결 시 인건비 소급 적용에 따른 일회성 비용 발생 가능성이 추가 변수로 남아 있음.

하반기부터 5공장 인증용 배치생산분과 미국공장 매출이 본격 반영되면서 구조적 성장 동력이 확대되는 국면임. 이를 반영해 동사는 연간 매출성장 가이던스를 15~20%에서 20%로 상향 조정함.

신규 수주와 펩타이드 사업 다변화를 기다리며

CMO 누적 수주 금액은 2Q26 기준 \$21.7B으로 '25년 말 대비 \$0.5B 증가하며 증가세는 다소 둔화. 다만, 미국 관세정책 확정('26.04) 이후 고객사 수주 문의가 회복되고 있어, 하반기 신규 수주 모멘텀 재개가 기대됨. 여기에 7/18 인수계약을 체결한 폴리펩타이드 M&A가 완료될 경우, '27년부터 펩타이드 CDMO로 사업 영역이 확장되며, 기존 항체 중심 포트폴리오에 중장기 성장동력이 더해질 전망.

(단위: 십억원, %)

구분	2025	1Q26	2026				3Q26			
			직전추정	잠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1,589	1,257	1,313	1,321	-16.9	5.1	1,322	1,338	6.4	1.3
영업이익	532	581	565	586	10.2	1.0	600	576	-9.0	-1.7
순이익	324	469	431	434	33.7	-7.6	463	426	-14.2	-1.8

자료: 삼성바이오로직스,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현대차
(0053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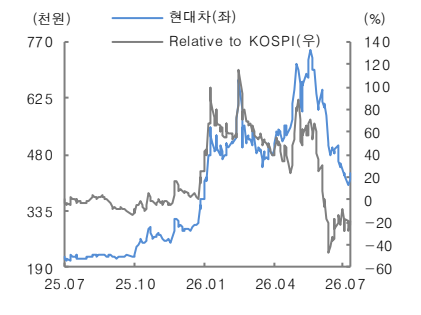
김귀연
gwiyeon.kim@daishin.com

박서영RA
seo.young.park@daishin.com

투자 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740,000
유지
현재주가 432,000
(26.07.23)
자동차업종

KOSPI	7096.89
시가총액	100,888십억원
시가총액비중	1.52%
자본금(보통주)	1,158십억원
52주 최고/최저	750,000원 / 210,0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9,506억원
외국인지분율	25.15%
주요주주	현대모비스 외 11 인 30.67% 국민연금공단 7.31%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5.5	-18.8	-15.3	94.6
상대수익률	-2.3	-25.9	-40.4	-12.7



부담은 덜어냈다

- '26년 고점(73만원) 대비 주가 -42% 하락한 상황에서 실적 부담 완화
- 2H26 신차 모멘텀/관세&환율 기저로 실적 개선 가시성 매우 높음
- 1) 신차 모멘텀, 2) RMAC 가동, 3) Physical AI 전략, 4) CID 이벤트 주목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740,000원 유지

현대차 TP 74만원(기업가치 151조원)은 본업 111조 + 로봇 35조 + SDV 6조 반영해 산출. '26년 고점(75만원) 대비 -42% 하락한 상황에서 우려했던 2Q 실적 부진 부담 덜어낸 점 긍정적. 로봇/Physical AI 기대감 빠르게 반영해온 만큼, 시장 조정/보스턴다이나믹스 지분 노이즈/실적 부진 민감도 클 수밖에 없었음. 이후, 1) 신차 모멘텀 재개(그랜저/아반떼/투싼), 2) RMAC 가동, 3) Physical AI 전략 구체화, 4) 8/26일 CEO Investor Day 이벤트, 5) 로봇 이벤트 감안 시, 동사 주가도 재차 반등 예상. 업종 Top Picks 지속 유지!

2Q26 매출 49조(YoY +2%, 이하 YoY), OP 2.9조(-21%), OPM 5.8% 시현

OP 당사 추정(2.7조) +6% 상회/컨센(3.0조) 부합. 2Q26 생산 차질/판매 부진/인센 증가에 따른 우려 컸으나, 우려 대비 양호한 실적 시현하며 부담 축소. [자동차] 매출 37조(-0.5%), OP 2.0조(-27%), OPM 5.4%. 도매 판매 97.2만대(-6.1%). 생산차질/모델 노후화에 따른 물량/믹스(인센) 부담 불가피 했으나, 환효과로 일부 상쇄. YoY 변수별 손익 영향은 물량 -5,420억/믹스 -5.700억/환율 +2,380억원 반영. 관세 영향 9,000억원 규모로 전년 동기(-8,280억)와 유사. [금융] 매출 9.5조(+15%), OP 7,590억(+16%), OPM 8.0%, [기타] 매출 2.9조(-4%), OP 1,210억(-53%), OPM 4.2% 기록

3Q26 매출 52조(+10%), OP 3.3조(+29%), OPM 6.4% 예상

자동차 매출 40조(+8%), OP 2.5조(+45%), OPM 6% 추정. 3Q25 관세(1.8조원)/환율(평균 1,385원/기말 1,402원) 기저로 YoY/QoQ 실적 개선 가시성 높음. 3Q26 유럽 판매 부진 및 노조 파업 불확실성 있으나, 개선세는 유효. 특히, 2026년 연말로 가며 아반떼/투싼FMC 신차 출시되며 개선세 더 명확해질 것

(단위: 십억원 %)

구분	2025	1Q26	직전	잠정치	2Q26			3Q26		
					YoY	QoQ	Consen	추정	YoY	QoQ
매출액	48,287	45,939	47,679	49,215	1.9	7.1	48,600	51,147	9.5	3.9
영업이익	3,602	2,515	2,687	2,851	-20.8	13.4	2,994	3,269	28.8	14.7
순이익	2,998	2,335	2,606	2,521	-15.9	7.9	2,618	3,138	38.8	24.5

자료: 현대차,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24A	2025A	2026F	2027F	2028F
매출액	175,231	186,254	197,755	204,919	208,752
영업이익	14,240	11,468	11,603	13,977	14,239
세전순이익	17,781	13,842	14,823	17,705	17,977
총당기순이익	13,230	10,365	11,295	13,491	13,698
지배지분순이익	12,527	9,446	10,730	12,817	12,959
EPS	46,042	35,331	40,432	48,294	48,830
PER	4.6	8.4	18.5	15.5	15.4
BPS	401,009	431,804	468,856	507,857	552,842
PBR	0.5	0.7	0.9	0.9	0.8
ROE	12.4	8.4	8.9	9.9	9.2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자료: 현대차,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삼성E&A (028050)

이혜진

hyejin1.lee@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68,000

하향

현재주가

46,650

(26.07.23)

건설업종

실적도, 수주도 가속화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68,000원(-6.8%). 건설업종 내 Top-pick 유지
- 매출액 2,6조(+19.8%, YoY), 영업이익 2,731억 원(+51.0%, YoY)으로 컨센 상회
- 그룹사 물량 확대에 따라 향후 2~3년 간 수주 확대 및 매출 성장 지속 전망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68,000원으로 -6.8% 하향. 업종 내 Top-pick

삼성E&A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68,000원으로 -6.8% 하향. 목표주가는 12개월 선행 BPS 30,200원에 Target PBR 2.25배 적용. Target PBR은 12개월 선행 ROE를 기준으로 ROE-PBR 방식으로 산출해 적용. 밸류에이션 방식 변경에 따라 목표주가를 소폭 하향하나, 그룹사 CAPEX 확대 및 해외 수주 모멘텀을 감안할 때 기존 투자 포인트 및 실적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 건설업종 내 Top-pick 유지

2Q26 매출액 2.6조(+19.8%, YoY), 영업이익 2,731억 원(+51.0%, YoY)

2026년 2분기 매출액은 2조 6,093억 원(+19.8%, YoY), 영업이익 2,731억 원(+51.0%, YoY)으로 당사 추정치(2,229억 원) 및 컨센서스(2,185억 원) 상회. 화공 부문의 매출은 1.1조 원(-17.8%, YoY)으로 감소했으나, 첨단산업(0.8조 원, +42.2%, YoY) 및 뉴에너지(0.7조 원, +146.3%, YoY) 부문에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 상승. GPM은 15.8%(+1.4%p, YoY)을 기록했으며, 부문별로는 화공 14.9%, 첨단산업 17.2%, 뉴에너지 15.5%로 일회성 이익 반영된 결과. 일회성 제거 시 화공 9.6%, 첨단산업 11.0%, 뉴에너지 12.9%. OPM은 10.5%(+2.2%p, YoY) 기록. 2분기 신규 수주는 3.0조 원으로 부문별로는 화공 0.3조, 첨단산업 1.5조, 뉴에너지 1.2조, 수주잔고는 22.7조 원 수준

그룹사 수주 규모 확대 + 해외 수주 모멘텀도 유효

그룹사 수주 규모는 기존 예상(3조 원)을 크게 상회하는 7조 원 이상 기대. 기존 예상 대비 확대 가속화된 그룹사 CAPEX 규모 및 속도에 기인. 다만 공식적인 수주 가이던스 상향 여부는 화공 발주 상황을 감안해 3분기 재검토 예정

그룹사 물량은 화공 대비 매출 전환 기간(1.5~2년 수준)이 짧아 빠른 실적 반영 가능. P5 진행 가속화, 그룹사 CAPEX 확대, 평택-용인 프로젝트 등을 기반으로 향후 2~3년 간 수주 확대 및 매출 성장 지속 전망. 2026년 매출액 10.7조 원(+18.3%, YoY), 2027년 13.2조 원(+23.7%, YoY) 전망

하반기 해외 프로젝트 대형 수주 모멘텀도 여전히 유효. 하반기 수주가 기대되는 해외 프로젝트는 사우디 SAN-7(30~35억 달러), 카타르 Urea(25억 달러), 멕시코 Pacifico Mexinol(20억 달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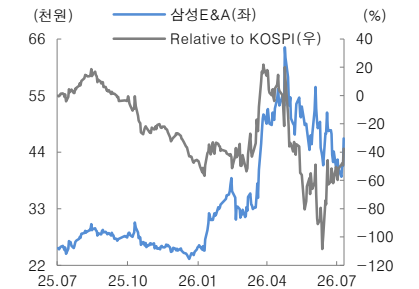
(단위: 십억원 %)

구분	2025	1Q26	2026			3Q26		
			직전추정	집중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매출액	2,178	2,267	2,503	2,609	19.8	15.1	2,521	2,816
영업이익	181	188	223	273	51.0	45.1	219	279
순이익	141	156	175	219	55.7	40.8	178	221

자료: 삼성E&A,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KOSPI	7096.89
시가총액	9,143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14%
자본금(보통주)	980십억원
52주 최고/최저	64,400원 / 23,25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242억원
외국인지분율	38.56%
주요주주	삼성SDI 외 6인 20.55% 국민연금공단 8.34%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4.0	-7.3	72.8	87.0
상대수익률	20.2	-15.4	21.5	-16.1



코람코더원리츠(417310) – 하나증권빌딩 매각 완료, 특별배당 후 청산 추진

이혜진 hyejin1.lee@daishin.com

2026.07.24

코람코더원리츠, 하나증권빌딩 매각 완료, 특별배당 후 청산 추진

- 2026년 6월 9일, 코람코더원리츠가 보유 자산인 여의도 하나증권빌딩 매각 완료. 주요 임차인인 하나증권이 매수선택권을 행사했으며, **매각가는 총 8,112억 원**(평당 3,840만 원)으로, 2020년 매입가 4,932억 원 대비 **3,180억 원의 매각차익 실현**
- 2025년 12월 임차인 하나증권의 매수선택권 행사 통지 → 2026년 2월 시장 공개 입찰 → 3월 입찰 및 페블스 토자산운용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4월 하나증권의 최종 매수의향 통지 → 6월 거래 최종 종결
- 코람코더원리츠는 여의도 하나증권빌딩 단일 자산을 보유한 리츠로, 매각 완료 이후 ① **매각대금을 활용한 신규 자산 편입을 통한 운용 지속과**, ② **특별배당 지급 후 리츠 청산** 두 가지 선택지를 검토
- 동사는 현재 서울 주요 권역 프라임 오피스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이번 자산 매각에는 우호적으로 작용했으나, 동일한 시장 환경에서 신규 자산을 편입할 경우 투자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 또한 최근 금리 변동성 확대 및 금리 상승 추세를 감안할 때 목표 수익률 확보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매각 성과를 주주에게 환원한 뒤 리츠를 청산하기로 결정**
-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법인세법 등 법률·세무 검토 결과, 해산 후 잔여자산을 직접 분배할 경우 리츠에 법인세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 따라서 잔여자산은 **우선 특별배당 형태로 환원한 뒤,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청산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
- 상당한 규모의 매각차익을 실현한 만큼, 각종 비용 및 부채를 제외한 잔여 금액은 특별배당 및 청산 절차를 통해 주주에게 배분될 예정. 단순 추정 기준, 매각 관련 수수료와 부채 등을 반영할 경우 주당 약 11,500원 내외의 배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다만 최종 배당 규모는 비용 정산, 세무 검토 및 청산 절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향후 일정은 10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개최 → 11월 특별배당 지급 및 임시주주총회 → 2026년 12월~2027년 1월 잔여자산 분배 → 2027년 2월 청산 종결 순으로 진행될 예정
- 코람코더원리츠의 이번 하나증권빌딩 매각은 자산 매입-운용-매각-주주환원 및 청산까지 이어지는 리츠 투자 사이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

그림 1. 코람코더원리츠 자산 매각 및 청산 타임라인



주: 상기 일정은 현재 예상되는 절차 및 일정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비용 정산 및 관련 협의, 내부 수권절차와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 코람코더원리츠,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